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002
----------	-------

발의연월일 : 2023. 5. 15.

발 의 자 : 이성만 · 박 정 · 박성준  
김홍걸 · 허종식 · 강준현  
주철현 · 신정훈 · 한정애  
송옥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형의 시효의 효과’를 규정하면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각각 30년과 20년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5년부터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공소가 아닌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정최고형인 무기형 역시 그 시효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형폐지국으로 무기자유형에 대하여는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

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78조제1호·제2호 삭제 및 제80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중 “형을”을 “형(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를 제외한다)을”로 한다.

제78조의 조 번호 “第78條”를 “제78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형자를 체포함으로써,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처분을 개시함으로써 인하여 중단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의 형의 시효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제78조제1호·제2호, 제8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u>형을</u>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 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 된다.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u>형(사</u> <u>형과 무기의 징역·금고를 제</u> <u>외한다)을</u> ----- ----- -----.
第78條(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30년 2. 무기의 징역 또는 금고: 20 <u>년</u> 3. ~ 7. (생   략)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 ----- ----- ----- -----. <u>&lt;삭   제&gt;</u> <u>&lt;삭   제&gt;</u>  3. ~ 7. (현행과 같음)
第80條(時效의 中斷) 時效는 死 刑, 懲役, 禁錮와 拘留에 있어 서는 受刑者를 逮捕함으로, 罰 金, 科料, 沒收와 追徵에 있어 서는 強制處分을 開始함으로 因하여 中斷된다.	제80조(시효의 중단) 시효는 징 역, 금고와 구류에 있어서는 수 형자를 체포함으로, 벌금, 과료, 몰수와 추징에 있어서는 강제 처분을 개시함으로 인하여 중 단된다.